

남해관광문화재단 경남관광상품개발 우수상

허귀용 기자 | 승인 2023.03.30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남관광박람회에서 '경남관광상품개발 어워즈'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경남관광박람회는 도내 지자체와 여행업계 등 100여 기관이 참가해 33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관광을 홍보했다.

경남관광상품개발 어워즈는 경남관광박람회 참가 기관의 지역 관광 상품 개발과 활성화 정도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상이다.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꽃피는 남해, 봄나들이는 남해로!'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조성했으며, 다랭이마을 유채꽃 포토존과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 탄소중립 실천 여행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현장감 있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귀용 기자 enaga@idomin.com

저작권자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귀용 기자